

보육 산업의 발달과 아동의 모성접촉으로부터의 소외[†]

A Study on the Technical Change and Maternal Touch in Child Care

김성희*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Kim, Sunghee*

Dept. of Social Welfare and Consumer Scienc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anges in child care technology on mother-child contact by using all sorts of literature such as diaries, documents or statistical data. Child care technologies began to change during the 1960's. Diverse goods and services such as baby dry milk, paper diapers and child care centers have made child care easier and saved a great deal of time. This has also allowed women to participate in labor markets easily despite rearing children. But maternal contact with children have declined due to new goods and services and this trend is especially prevalent in early childhood. It could be supported that the convenience of rearing rather than the needs of children like as attachment to maternity primarily was considered in technological change. From this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we should develop the alternative child care technologies which better reflect children's needs.

Keywords: child, child care, maternal touch, child care technology

I. 서론

보육산업이 발달하면서 주로 주부의 일이거나 역할이라고 간주해왔던 돌봄 노동과 양육이 시장상품과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종이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상품이 생산되었고 영아전담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등 새로운 보육서비스가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Gilman(1972)은 이러한 돌봄 노동의 산업화는 여성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취업 노동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가족의 휴식처로서의 기능도 강화시키는 등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Strasser에서 재인용, 1982).

현재 과학기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도구주의적 기술관으로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인간이 사용하여 편의를 추구하므로 기계와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둘째는 기술결정론으로 기술을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보고 기술이 인간의 경험을 결정짓는 제 1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기술을 통해 인간은 경험을 확장시키고, 기술은 인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김상호, 2008; McLuhan, 1964). 셋째는 페미니즘에서의 논의로 남성 주도하에 근대과학이 형성됨에 따라 여성은 과학인식론 성립과 발달과정에서 소외되어 과학기술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논쟁이 있다(금인숙, 2008; 김현희, 최문경, 2000).

[†] 한국생활과학회 2010 하계학술대회 심포지움 발표 '보육산업의 발달과 휴먼터치의 변화'를 논문으로 구성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Kim, Sunghee

Tel: 061-750-3674, Fax: 061-750-3674

E-mail: ksh@suncheon.ac.kr

이러한 과학기술에서의 논점을 보육 산업에 적용해 볼 때 첫 번째 도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보육 상품 및 서비스는 양육에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파악된다. 아동은 상품 이용으로 더 편해지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여성은 경제활동이 용이해져 가족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라고 볼 수 있다.

McLuhan(1964)의 기술결정론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보육 기술의 확장은 인간의 발달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인간을 위축시키면서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고도의 물질문명이 기계적 인간관계를 확대시키고 정신적 빈곤을 증가시키므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휴먼터치(human touch) 즉 공감과 감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페미니즘에 따르면, 과학은 권력의 문제이므로 여성이 과학기술의 세계에서 소외되어 온 것처럼 사회문화적 변동에 의해 유발된 권력의 불균형은 보육 산업에서도 수혜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엘킨드(1995/1999)는 근대 가족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희생되었지만 포스트모던 가족에서는 아동이 보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균형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은 보육 상품과 서비스 보급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

보육 상품과 서비스가 성인기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기에 사용됨에도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의심없이 사용되거나 개발되고 있고 이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육시설의 경우 미국에서조차 1980년대 초까지 이의 유해성을 입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비텔프, 2005/2007). 영유아기의 경험이 성인기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신분석학 이론이 19세기에 생겨났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보육시설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의 결정론적 시각과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볼 때 보육 상품과 서비스는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아동 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보육 시설은 아동의 애착 환경을 바꿈으로써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현재 보육시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보급을 확대하고 아동의 적응을 돕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고 발달을 더욱 향상시켜갈 수 있지만 가족의 감정적 돌봄이나 인간접촉으로부터 소원해져 왜곡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보육의 산업화가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는 하나 모성을 약화시키고 아동에게는 애정의 결핍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경제적 생산성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이러한 역기능은 간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 산업이 아동에 미친 영향을 조망해보고자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보육의 산업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와 더불어 변화된 아동의 양육자와의 모성 접촉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의 연구결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결핍 및 정신적 빈곤의 배경을 일부 설명해줄 것으로 보며, 아동이 처한 소외의 상황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체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본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보육의 산업화 과정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개발 생산 보급된 우유와 종이기저귀 등의 보육상품과 보육시설로 대표되는 서비스의 개발 과정을 고찰하였다. 보육 산업은 양육자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통사회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양육자 및 양육환경의 변화를 통해 고찰하였다. 전통사회의 양육자는 조선시대 쇠미록, 양아록, 미암일기, 내훈 등의 문헌과 풍속화를 통해 고찰하였다.

쇠미록은 조선 중기에 선공감 감역을 지낸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이 임진왜란 시기에 피난하며 10여 년간 쓴 일기로 조선시대 일상을 잘 보여주며, 미암일기는 조선 후기 선조 때의 학자인 유희춘(1513~1577)이 쓴 일기로 역시 일상이 잘 나타나 있다. 양아록은 16세기 학자이자 관료였던 이문건(李文健, 1494~1567)이 손자의 성장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조선시대 양육 상황을 잘 보여준다. 내훈은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昭惠王后)가 1475년(성종 6) 부녀자의 교육을 위해 편찬한 책으로 조선시대의 양육 지침이 잘 나타나 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가장 많이 그려진 조선시대 풍속화도 조선시대 생활상을 잘 보여주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돌봄 노동을 감소시키는 상품 및 서비스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유와 종이기저귀, 보육시설에 초점을 두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발간 자료 등으로 고찰하였다. 아동의 모성접촉의 변화는 양육자의 편의와 아동의 소외

에 초점을 두어 아동과 모성의 문제나 상담이 상세하게 잘 드러나 있는 인터넷 자료 특히 Naver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지식 in에 올라 있는 최근 5년 이내의 상담 자료와 정보 제공란의 글을 통해 탐색하였으며 그 밖에 논문, 서적, 통계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Ⅲ. 보육의 산업화 과정과 아동의 모성 접촉의 변화

1. 양육자의 변화와 보육 산업의 발달

전통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대가족제도 하에서 여러 가족원에 의해 이루어졌다(이명조, 2005). 조선시대 민속화에서 아동은 어머니나 누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2; 정병모, 2001). 소혜왕후 한씨(1988)는 모의장(母儀章)에서 ‘무릇 자식을 낳아 여러 어머니(諸母)와 마땅한 사람을 택하여’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조선시대에 자녀양육과 교육에는 친모 뿐 아니라 조모, 누이 등 여러 부녀자가 관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부녀자뿐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자녀양육에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몇몇 일기에서 엿볼 수 있다. 16세기 양반이었던 오희문이 기록한 ‘쇄미록’ 일기에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김성희, 2000). “위로 두 딸은... 내 항상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왔고... 아들놈은 성질이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기에 지난 해 초봄에 너무 과하게 매를 때린 것을 오늘날 생각하니 아무리 뉘우쳐도 어쩔할 수가 없다.”, “단녀와 바둑을 두고 호도놀이를 하였다.”, “식사 후 인아, 단녀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뒷 봉우리에 올라 손수 고사리를 꺾어 가지고 왔다.” 할아버지가 손자양육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16세기 이문건의 체험적 육아일기인 양아록(이문건, 1997)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손자의 출생 시부터, 걸음마, 말을 배움 등의 성장과정을 관찰하며 훈육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주가(主家)에 종속되어 일하던 유모나 노비도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 사가(士家)에는 대부분 유모가 있었는데 이는 혼수품 제한과 분재기에서 알 수 있다(김성희, 1999). 세종실록에 “새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날..... 젖어미 1명, 몸종 2명, 남종 10명을 넘

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혼수인 유모 수를 제한하였다. 노비 분재 시에는 자녀별로 노비를 분재하면서 1자녀 1유모 혹은 2자녀 1유모가 책정되기도 하였다(김용만, 1996). 유모 외에 어린 비자도 주가의 자녀를 돌보았던 것을 미암일기에서 볼 수 있다. 미암일기 계유년 8월 28일에 “밤 세시에 소비(小婢) 돌금이가 딸 방의 문 밖에서 숙직하다가 잠자던 중에 잘못 마당으로 나가 떨어져 머리가 장독에 부딪쳐 깨지는 바람에 온 집안이 놀라 살펴보았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노비는 양반이 아닌 상민이나 천민도 소유할 수 있었다. 1630년 경상도 산음현의 경우를 보면 상민의 39%, 천민의 9%가 노비를 소유하였다. 양반의 노비 소유 비율은 더 높아 1807년 경상도 월성군 양좌동에서는 전가구의 74%를 차지하는 양반이 모두 1인-2인의 노비를 두고 있었다(최재석, 1983). 노비 중 아이돌보기를 주로 하였다고 추정되는 여성 비의 비율은 1807년 양좌동 호적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노비를 둔 가구 중 비(婢)가 없는 가정은 1.5%에 지나지 않고, 78%가 1-4인의 비(婢)를 소유하고 있다(김성희, 1999). 대부분의 양반 가족에는 아이를 돌보는 여성 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 자녀양육은 어머니 뿐 아니라 할머니, 누이, 아버지, 할아버지, 노비, 유모 등 다수의 가족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아동은 이들의 돌봄 속에서 양육되었다. 사회화된 돌봄 노동은 서당 선생이 교육을 맡는 정도가 유일하였는데, 이는 양반의 아들에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아동은 여러 가족원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교육을 받고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고 아이돌보기와 가사는 전적으로 집에 남아 있는 여성, 주부의 일이 되기 시작하였다(코완, 1983/1997). 노비제도의 소멸로 유모와 비자의 도움은 사라졌고 핵가족화로 조부모의 조력도 받기 어려워졌다. 학교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손위 자녀도 양육을 도울 수 없게 되었다. 부족한 가족의 조력을 대신해서 가정부를 고용하기도 하였는데 1968년 김분옥, 장명옥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가정고용인 비율은 60% 정도였다. 상류층의 90%, 중층의 58%, 중하층의 29%가 가정고용인을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960년대 무렵까지는 주부와 가정부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전후에는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가정부 인력마저도 공장노동자로 유입되어 주부 혼자 양

육을 해야 했다. 1989년의 이승미 연구에 의하면 서울 주부의 14.3%만이 가정부나 파출부를 고용하고 있었다. 가정고용인의 공급 감소 뿐 아니라 현모양처를 여성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도 가정고용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다. 1977년 7월 19일 동아일보에는 “가정부를 두지 말자”는 기사가 실렸다. 사회적으로 가정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은 사치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고 정서적인 면에서 살림은 주부가 사랑과 정성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되었으므로 양육은 전적으로 주부의 일이 되었다(김성희, 1999).

여성의 주된 역할이 가정에서 자녀를 사회화시키고 가족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지만, 무보수의 가사노동으로 주부의 사회적 지위가 낮게 평가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년 26.8%에서 1970년 38.5%, 1980년에 41.6%, 1990년 47.0%, 2000년 48.8%, 2009년 49.2%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한국여성개발원, 1994).

가정부 인력이 감소하고 주부의 취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육아와 관련된 돌봄 노동이 산업화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 국내에서는 처음 S사에서 조제분유를 생산하였고, 이어 1967년에 N유업, 1972년 M유업에서도 조제분유를 생산하였다(박승용, 2003). 이어 1983년에는 Y사에서 국내최초로 테이프 형 아기기저귀를 출시하였다(유한킴벌리, 2009). 아기 옷도 1979년 전문 업체 A가 설립되어 상품화되었다(“25세 청년 기업들”, 2004).

보육시설의 경우 초기에는 빈민 구제 사업으로 탁아소가 시작되었다.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에 탁아프로그램이 개설된 이래 탁아소가 증가하였지만 1950년대까지는 임시구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 양육이 주부 혼자 수행해야 하는 일이 되면서 부득이할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탁아시설 증설이 주부들에 의해 요청되었다(“가정부를 두지 말자”, 1977).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수탁아동도 늘어남에 따라 1978년에는 보육시설을 중산층의 일반아동에게도 개방하는 '탁아시설 운영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김지현 외, 2008). 1980년대 후반에는 기혼 취업여성의 급증으로 도시 저소득층 아동과 농어촌 지역아동의 방치 문제가 대두되자 보육시설은 유치원과 분리되고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었다(이명조, 2005).

1990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은 1,919개였지만 2007

년에는 30,856개로 증가하였고, 이용 아동 수는 1990년 48,000명에서 2007년에는 1,099,933명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7, 2008).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시행된 후에는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려는 야간보육시설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개발되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은 더욱 증가하고 일반화되고 있다.

결국 보육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생산됨에 따라 아동 양육은 어머니와 누이,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유평과 비자 등의 다수의 가족원에서 주부와 가정부에게로, 최근에는 주부에게서 보육 상품과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양육자의 편익과 아동의 소외

보육 산업은 아동의 욕구나 건강한 발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유제품의 경우 아기 성장에 유익한 칼슘을 다량 함유한 완전식품으로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아왔다. 아기에게 이상적인 음식은 아기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어머니와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돕는 모유이지만(신영희 외, 2009), 양육자는 우유가 모유를 대신할 수 있는 영양식으로 믿고 공급해 왔다.

우유가 이처럼 모유를 대신할 수 있는 영양식으로 간주되어 온 이유는 수카르(2007/2009)에 의하면 낙농업계의 선전 활동과 로비 활동의 결과 때문이다. 우유 가공 산업은 초기에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에게 통조림식 유제품을 제공하면서 발전하였지만 전후에 판로가 막히면서 기업들은 유아를 관측 목표로 삼게 되고 어릴 때 얻은 식습관은 평생 지속된다는 것을 마케팅의 전략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판매 공략을 세우면서 우유가 영양식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S사는 조제분유 생산 초기에 “애기가 아주 튼튼하군요. S분유를 먹이신다죠? 네 처음부터 쪽 S분유를 먹여왔는데요 소화도 잘되고 아주 좋아요(광고정보센터, 2010).”라고 유제품의 유익성을 홍보하였다. 현명한 어머니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 유제품을 선택한다는 광고까지 했었는데 1980년대 M사는 다음과 같이 유제품을 광고하였다. “엄마 젖이 묽어지면 M... 뭘 먹여서 이렇게 잘 키웠나, M을 먹여서요...너 키울 때는 멸치를 갈아먹였지, 요즘엔 M에 다 들어 있어요, 요모조모 따져보고 M으로 바꾸었어요. 똑똑한 엄마 두어서 넌 좋겠다(“매일매

일”, 2008).”

유제품이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왔지만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하면 암과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고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수카르, 2007/2009), 유아기 동안 우유 단백질 섭취할 경우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필먼, 2004/2008). 필먼(2004/2008)은 생후 3개월 이전에 우유 중심의 유동식을 섭취한 아동은 우유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52% 이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유는 아기에게 적절한 식품이 아님에도 모유의 맛, 모유의 영양을 갖고 있거나 영양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오해와 '엄마 몸매가 망가진다'는 등의 편견 때문에 그리고 수유의 간편성 때문에 선호되었다. 특히 직장인 여성은 출산 후 모유 수유를 길게 하고 싶어도 일터로 복귀한 후에는 모유수유가 어렵기 때문에 조제분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되어 왔다(“올바른 모유 수유”, 2009)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이 겪는 불편과 모유가 아기 성장에 좋은 점은 다음의 한 여성의 기술에서 잘 대비되어 나타난다.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며 심지어 밤에도 ...먹이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야 했던 것, 분유를 먹이는 경우 아빠가 밤에 분유를 타 먹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다. 모유수유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서 먹인 적도 있었다. 또 젖이 들고 가슴이 커지고... 처녀 적과 비교하면..가슴이 커진 게 좀 불만족스럽다.” 그러나 좋았던 점은 “지금까지 잔병치레 한번 없었으며 나이에 안 맞게 깎쟁이라는 등 어른들의 칭찬도 많이 들었다. 모유수유 중 아이를 보고 있으면 참 좋다고 감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모유로 아기를 키우신 분”, 2005)”라고 기술하고 있다.

모유 수유는 유아와 모체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아기의 모성접촉을 최대화시키지만 우유는 아기와 모체의 신체적 접촉없이 공급될 수 있다. Bowlby (보울비, 1969; 김지현 외에서 재인용, 2008)에 따르면 영아기에 양육자와 아이는 서로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끼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애착은 이후 시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기의 최초의 애착은 어머니의 젖을 빠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머니가 직접 우유를 먹이더라도 아기와 어머니의 신체적 접촉은 우유통을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모체와의 접촉은 최소화된다. 우유가 모성이 아닌 부성, 제 3자에 의

한 수유도 가능케 하므로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하지만, 아기가 양육자와 강한 애착형성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유 수유는 아기 혼자 독립적으로 수유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므로 애착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아기의 심리적 신체적 욕구에 가장 적합한 식품은 모유이지만 2007년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완전 모유 수유율은 23.1%에 지나지 않는다. '모유 량이 부족하거나 안 나와서' 54.2%, '유두 함몰 때문에' 2.6%로 대부분 모체의 문제 때문에 조제분유를 이용하였다. 이 외에 조제분유를 이용한 이유는 '직업 때문에'가 8.7%, '분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3.4%, '병원에서 먹여서'가 4.0%였다. 아기 건강 때문에 조제분유를 이용한 경우는 10.3%에 지나지 않았다. 아기는 모유를 가장 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유제품이 등장하면서 양육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모유는 선택에서 배제되고 아동은 모성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이기지귀의 경우도 초기 생산회사인 Y사가 출시하였을 당시에는 '아기가 위생적으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개발되었다(유한김벌리, 2009). 그러나 성인보다 피부가 연약한 유아는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쉽게 받기 때문에 가공섭유가 위생적일 수는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공섭유에는 실용성과 촉감의 개선, 고기능성의 부여를 위해 1200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특히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는 세탁이 불가능하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감소되지 않아 유아에게 치명적인 의류장애가 생길 수 있다(신정화 외, 2004).

또한 종이기지귀는 오랜 시간 착용 가능하므로 아기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 유해성은 다음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천 기저귀는 그야말로 오줌이 몇 방울만 묻어도 갈아달라고 울어대니 밤에도 두어 시간 이어서 폭 잘 수가 없다. 세탁기로 빨라고 해도, 삶아야지, 털어서 널어야지, 또 반듯하게 개켜야지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가 말이다. 언젠가 TV에서 종이 기저귀 광고를 보다가 '다섯 번까지 적셔도 문제가 없어요.' 하는 내용을 보고 어이없던 적이 있다. 아이가 다섯 번이나 오줌을 싸면서도 깨지 않고 폭 자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다섯 번은 커녕, 조금만 오줌이 묻어도 바로 갈아달라고 징징 거린다(“기지귀”, 2007)”.

종이 기저귀는 천기지귀에 비해 장시간 착용이 가능하므로 어머니가 같이주는 경우에도 모성접촉을 감소시킨다. 기저귀를 가는 동안 아기는 모성 접촉을 통해 어머니

가 자신의 불편에 공감해주는 것을 느끼고 신뢰감을 쌓아갈 수 있지만 장시간 착용 가능한 종이기저귀를 사용함에 따라 이러한 모성접촉 시간은 감소되고 있다. 기저귀 사용에서도 아동의 욕구보다는 양육자의 편의가 더 많이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내가 쓰레기 운동하는데도 아내에게 면 기저귀 쓰라고 하면 반대한다. 일일이 못 빨면 세탁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다른 집 물건들과 함께 세탁되는 게 싫다는 것이다(“1회용 제품 가격 올리자”, 2008).”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초기에는 빈민 등 소외 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육시설은 일반 아동을 교육하는 시설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Freud, Piaget 등의 심리학자가 영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Bloom(1964)과 같은 교육학자가 유아기에 성인지능의 80%가 발달한다고 주장함에 따라(김제한, 1998; 이명조, 2005)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요구도 증가하였다. 일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이 시작되는 1970년대 이후 몬테소리 프로그램, 개방주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프로그램,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문 보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김영옥, 2009),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더욱 증가하였다

어머니들은 특히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였는데 다음의 한 어머니의 글에서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난다. “처음에 어린이집 보내 놓고 소풍이나 견학만 가면 온갖 불길한 상상을 해대며 맘 졸였죠... 그런데 ... 무엇보다 엄마가 높아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래들이랑 어울리는 거 보면 정말 신나 하더라고요(“아이 처음으로”, 2007).”

보육시설에서의 전문적 교육이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의 심리적 욕구는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Ainsworth(1978)에 따르면 0세에서 3세는 애착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 안정적 유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아동은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어렵다(이명조, 2005). Schore(2003; 비텔프에서 재인용, 2007)는 사랑으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아이의 두뇌발달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의 안정적 애착은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육교사의 이직률은 유치원 교사의 퇴직률이 12.8% (한국직업능력개발, 2009)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리고 민혜정, 나종혜(2010) 연구에서 만 1세 영아반 보육교사는 전반적으로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적극적 상호작용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육시설에서 아동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유아의 입장에서 볼 때 보육교사보다 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9년 54개에서 2008년 665개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용 아동 수도 1999년 2,026명에서 24,398명으로 거의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1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는 2005년 83.1%로 2002년 86.4%보다 감소하였다(통계청, 2005). 신생아의 경우도 2009년 서울 경기 지역 조사에서 어머니가 주로 양육하는 경우는 88.1%였고 양육기관이 양육하는 경우가 6.8%였다(우남희 외, 2009).

보육시설에서 보육시간은 기본적으로 12시간으로 아동은 매우 긴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다. 가족과의 접촉 단절을 의미하는 보육시간은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더 길어서 12시간 이상 14시간 운영하는 곳도 62.5%나 된다(송혜린, 2009). 24시간 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 등 보육서비스가 다양하게 발달할수록 아동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더욱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백지혜(2008)의 연구에서 보육의 양은 영아의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과 부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상호작용 경험이 적을수록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떨어뜨려 영아와 어머니간의 안정된 애착 형성을 방해하므로 장시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결코 아동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 아동은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48,000명에서 109만 여명으로 거의 23배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에 48.4%에서 2008년에는 50.0%로 1.6%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보육시설은 취업여성 뿐 아니라 전업주부에게도 이용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업주부의 10세 이하 자녀 양육 실태를 보면 자녀가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는 2005년 85.0%로 15.0%의 자녀는 부모 이외의 자가 양육하였다. 보육시설 종일제에 3.0%, 보육시설 반일제에 8.5%, 학원에 28.7%, 방과 후 교실에 2.4%, 유치원에 14.4%를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05). 신생아의 경우도 이 시기를 사교육을 시키기에 적당한 시기로 보는 어머니가 71.7%나 되므로(우남희 외, 2009), 전업주부도 신생아를 보육시설에 맡길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교사 1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라면 누구나 짐작하듯이 24개월 미만 영유아 5명을 교사 한 명이 '제대로' 돌보는 건 그야말로 불가능하다(“보육교사 경험자”, 2009).” 보육교사들이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는 있지만 아기의 눈짓이나 웅얼거리는 소리와 같은 미묘한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텔프(2005/2007)는 아무리 훌륭한 보육시설이라도 아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으므로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영유아는 물론 신생아까지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 1인당 평균 유아 수는 15.5명에 이르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보육교사 1명,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는 20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권혜진, 이순형(2001) 연구에 의하면 소집단의 보육교사는 대집단의 보육교사보다 영아에게 쓰다듬기, 웃기, 신체적 보살핌과 같은 공감적 상호작용과 개별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교사가 책임지는 아동 수가 커지는 경우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명의 교사가 1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 아동과 접촉하는 시간과 빈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다수의 아동을 돌보면서 아동 개인의 욕구에 수용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교사의 실태는 다음의 한 어머니의 상담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 때문에 정말 고민입니다. 현재 3살 이구요. 3세는 점심 먹고 1시경이면 다들 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원에서 안 자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 다들 자고 우리 아이만 울고 선생님은 커피 마시며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 나누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이는 구석에 혼자 앉아 영영 울고 있고 선생님은 창밖 바라보며 감상에 빠져있고, 엄마 욕심에는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달래주고 선생님이 아이 데리고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고픈데 그런 모습은 보질 못했네요(“아이 어린이집 때문에”, 2008).”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보육시설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집단이 커질수록 아동은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권혜진, 이순형, 2001). 또래와 욕구 충족을 위해 경쟁하게 되면서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고

성장해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텔프(2005/2007)는 주장한다. 점점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의 약물문제, 우울증 등이 이러한 보육환경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육시설이 증가하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은 2005년 29.9%에서 2008년 38.8%로 증가하였고(보건복지가족부 외, 2008; 질병관리본부, 2005), 2006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25.8%가 정서나 행동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초등학교 정신건강 심각”, 2006). 20~24세 청소년의 음주율은 1995년에는 74.3%였지만, 2008년에는 80.8%로 증가하였고, 동 연령대의 흡연인구비율도 1995년에는 63.0%였지만, 2008년에는 72.9%로 증가하는 등 아동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0; 2009).

또한 비텔프(2005/2007)는 보육시설의 아동은 양육자가 자주 바뀌므로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백지혜(2008)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변경회수가 0회인 영아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2, 3회인 영아보다 높아 보육의 안정성과 애착 안정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 이후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기에 이른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혼인율이 감소하는 등 가족관계가 변하는 것은 양육환경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분유나 기저귀, 보육시설의 이용으로 돌봄노동 시간이 감소하면서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책읽어주기, 이야기하기, 놀아주기 등의 활동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양육이 수월해진 만큼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여성의 가족돌보기 시간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평일 43분 토요일 41분 일요일 35분으로 변화가 없다. 보육 산업의 발달로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보육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아동은 어머니에서 보육교사로 점점 더 친밀한 인간접촉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계에 익숙하지 않으면서 공격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이 취약한 인간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모성의 약화와 대체물

모성의 보살핌은 여성의 자연스런 욕구이면서 아동이 성장한 후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므로 사회를 하나로

뭉어 주는 힘이 된다(테일러, 2002/2008). 이런 모성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양육에 전념하기도 한다. 2005년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미취업사유는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49.1%,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가 29.7%였다(여성부, 2005).

여성이 취업하지 않고 자녀를 돌볼 경우 아동들은 취업 여성의 아동보다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을 비교해 보면 취업주부는 가족보살피기에 2시간을 사용하고 전업주부는 4시간 6분을 사용하였다(이영환, 이수재, 2007).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보살핌을 대략 두 배나 더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아동에게는 모성에 의한 돌봄이 가장 적합한 보살핌이지만 여성취업이 증가하고 돌봄 노동이 시장상품 또는 공공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모성도 약화되고 있다.

어머니들은 더 이상 자녀를 위해 기꺼이 애정을 지속시키려 하지 않는 것 같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 시기에 해당하는 30-34세의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1983년에는 33.1%였지만 2006년에는 53.1%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7; 한국여성개발원, 1994). 가족이나 돌봄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보다 사회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어머니 역할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취업자가 되어 산업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아동에게 모성접촉의 시간을 감소시키는 24시간 보육, 야간 보육 등의 보육서비스는 취업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라인하르트(2003/2010)는 모성본능은 사회가 지어낸 허구이며 엄마로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미화된 거짓말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전문적 보육기술과 지식이 발달하면서 모성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도 감소되고 있다.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고 부모들은 전통적 보살핌이나 양육방식에 자신감을 잃고 있다. 이호분(2009)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아이를 병들게 하므로 ‘차라리 자녀를 사랑하지 마라’고 적절히 무관심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의 사회성, 독립성 발달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어머니의 양육보다 또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아동발달에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Harris(2009)는 부모의 영향력이 아동발달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비판하고 또래집단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양육가설을 주장하여 극단적으로 부모의 무관심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모성이 약화되면서 아동은 애정 공백을 전문가와의 상담, 컴퓨터 게임 등의 시장상품 또는 공공서비스로 메우고 있다. 청소년 상담센터의 경우 2001년 111개소에서 2006년에는 142개소로 증가하였고, 개인상담 인구는 2001년 59,068명에서 2006년에는 131,758명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1, 2006).

아동들은 인터넷 게임, 채팅을 통해서도 심리적 안정을 얻고 인간접촉을 확장시켜가기도 한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의 탐닉은 오히려 현실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교우관계를 더욱 단절시키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2008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10시간 넘게 컴퓨터를 하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14.3%(103만 5000명)에 이르고 있다(“사이버게임 채팅”, 2010). 가상공간을 통한 교류는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정서적 유대를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이스비트 존과 나이트 나나(1999/2000)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정신적 빈곤이 커질수록 사회는 좀 더 많은 상호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하이터치의 사회가 된다고 예견하였다(홍석표, 2008). 보육 산업에서도 모성이 약화될수록 아동의 모성접촉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계가 갖는 인간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요소에 인간적 요소를 더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컴퓨터로 연결된 손목밴드로 가족의 손을 대신 잡아주는 로봇손이 상품이 개발되어 인간 접촉의 욕구를 보충해주고 있다(“이역만리서”, 2010). 기술의 발달로 약화된 모성을 다시 기술의 발달로 해결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증가하는 보육 상품과 시설이 아동에 미친 영향을 모성 접촉에서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관한 도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보육 산업의 발달은 아동과 양육자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여성 취업을 가능하게 하며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 보육 상품과 보육시설의 증가로 양육자는 보다 용이하게 아기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은 보다 좋은 교육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성접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유와 종이거저귀 등의 상품은 아동이 따뜻하고 애정 어린 어머니와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시설은 더욱 모성적인 돌봄과 보호로부터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모성 접촉의 기회는 점점 감소하고 있었고 모성은 전문성을 상실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결핍된 애정 대체물로 상담과 게임에 몰두하면서 정신적인 건강을 상실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보육 산업이 인간의 삶에 편익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술결정론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결핍 및 정신적 빈곤은 다시 보육 산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경험을 확장시키고 변화된 인간은 새로운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창조해서 다시 기술을 확장시켜간다는 것이 기술결정론의 관점이다. 보육 상품과 서비스도 인간 경험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간은 다시 새로운 보육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보육 산업과 함께 진화해가므로 보육 상품과 서비스가 초래하는 아동 소외의 문제도 결국 새로운 보육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는 모성접촉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보육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보육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아동에게 모성적인 관심과 공감 즉, 모성접촉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보육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페미니즘 과학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동을 위한 새로운 대체 과학기술과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페미니즘 과학관은 권력자의 논리에 의해 자연과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과학의 수혜에서 배제해왔다고 비판한다. 현재의 보육 산업이 아동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파악하고 아동을 과학기술의 수혜에서 소외시켜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페미니즘이 여성 경험 중심의 새로운 대체 과학을 창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듯이 앞으로는 성인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보육 지식의 생산과 유통, 아동의 상품화에 맞서는 새로운 친아동적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아동의 욕구에 의거하는 보육 산업, 아동의 발달을 우선 고려한 보육시스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생명을 복돋우는 체험적 지식이 산업화될 때 아동 중

심의 보육 산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친아동적 기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 상품 및 서비스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새로운 보육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보급되기에 앞서 이를 아동의 입장에서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과 모성접촉, 가족과의 유대를 증진시키는 대체보육 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내에 가족방을 마련하여 아동과 가족과의 만남을 자유롭게 하거나, 보육시설에서 부모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정 연령 이하의 영유아는 야간 보육시설, 24시간 시설 이용을 제한하면서, 부모 휴직을 의무화하고 대신 이 기간 중의 소득과 직장복귀를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연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족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의 아동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접촉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을 때 가족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로봇, 인형과 같은 감성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동에게 결핍된 모성접촉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감성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아동과의 접촉을 증진시키는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모성적 특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 상담사의 경우도 다른 상담사와는 다르게 약화된 모성접촉을 보완하는 상담기술을 갖도록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인간에게 편익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편리를 위해 개발된 상품과 서비스가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일부가 되어 인간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인간의 욕구는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는 감소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서 기술의 변화에 따라 충족시켜주는 주체가 모성에서 보육교사, 로봇으로 변화되고 있다. 아동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성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성인 중심의 편리를 추구하는 기술로 아동은 맞춤 욕구인 모성 접촉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원하는 모성의 양과 질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보육 상품과 서비스에서 부족되기 쉬운 아동에 대한 공감과 인간 접촉을 보완하는 친아동적 기술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 아동, 보육, 모성, 보육시설 및 보육상품

참 고 문 헌

- 가정부를 두지 말자. (1977, 7. 19). 동아일보.
- 광고자료정보-서울분류. (2010). 광고정보센터, 자료검색 일 2010, 2. 22, 자료출처 <http://www.adic.co.kr/ads/list/showNaverTvAd.do?ukey=85941>.
- 권혜진, 이순형. (2001).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22(4), 201-212.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정책총괄팀. (2001).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정책총괄팀. (2006).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립중앙박물관. (2002). **조선시대 풍속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금인숙. (2008). 생명과학에 대한 여성주의 성찰. **담론** 201, 10(4), 133-166.
- 기저귀. (2007, 3. 19). 네이버 blog, 자료검색일 2010, 1. 22,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don3123/40035580205>.
- 김분옥, 장명옥. (1968). 우리나라 주부의 부엌 관리술. **대한가정학회지**, 6, 959-971.
- 김상호. (2008). 맥루한 매체이론에서 인간의 위치: 기술 우선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8(2), 84-121.
- 김성희. (1999). 가사노동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49-158.
- 김성희. (2000).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가장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3-23.
- 김영옥. (2009). 한국 유아교육, 보육 프로그램의 동향 및 과제. **아동교육**, 18(3), 55-68.
- 김용만. (1996). **노비생활**.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조선시대 생활사**. 서울: 역사비평사.
- 김제한. (1998). **발달심리학**. 서울: 양서원.
- 김지현, 김수희, 김정숙. (2008). **보육학개론**. 서울: 학현사.
- 김현희, 최문경. (2000). 과학기술의 발달과 여성-과학, 기술, 컴퓨터 그리고 사이버 공간-. **정보와 사회**, 2, 1-33.
- 나이스비트 존, 나이스비트 나나. (1999). **High Tech/High Touch**. 안진환 옮김 (2000). **하이테크 하이터치**.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매일매일 행복한 맘들의 이야기. (2008, 5. 22). 네이버 cafe, 자료검색일 2010, 1. 22,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maeillove/15438>.
- 라인하르트, 수지. (2003). **FrauenLeben ohne kinder**. 강혜정 옮김(2010). **난 죽을 때까지 여자로 산다**.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 모유로 아기를 키우신 분과 분유로 아기를 키우신 분들 인터뷰 좀 해주세요. (2005, 4. 6). 네이버 지식iN, 자료검색일 2010, 1. 21, 자료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0114&docId=22563798&qb=66qo7Jyg66GcIOyVhOq4sOulvCDtgqTsmrDsi6Ag67aE6rO8IOu2hOycoOuhnCDslYTquLDrpbwg7YKk7Jqw7IugIOu2hAnrk6Qg7J247YSw67ew7KuMIO2VtOyOyEuOyalA=&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gud2tloi5UlsstOXgSssss--003331&sid=TCQvVykJEWAAAB@fFHU>.
- 민혜정, 나종혜. (2010). 만 1세 영아를 위한 보육의 구조와 과정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63-74.
- 보육교사 경험자가 말하는 어린이집. (2009, 10. 19). 네이버 blog, 자료검색일 2010, 1. 22,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ink1969/100091356057>.
- 박승용. (2003). **우유생산과 가공**. 서울: 유한문화사.
- 백지혜. (2008). 영아의 보육의 안정성, 시작시기, 양과 애착안정성 간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1), 195-212.
- 보건복지가족부. (2007).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7). **국민건강통계**. 서울: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 4차 (200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http://healthy1318.cdc.go.kr>.
- 비텔프, 스티브. (2005). **Raising Babies**. Harper Collins.
- 이승희 옮김 (2007).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라**. 서울: 북섬.
- 사이버게임·채팅... '인터넷 중독' 탈출하라 (2010, 1. 21). 인터넷과학신문 사이언스타 임즈.
- 소혜왕후한씨, 이계순 교주. (1988). **내훈**. 서울: 백양출판사.
- 송혜린. (2009). 가족친화적인 환경으로서의 직장보육시설. **한국가정관리학회 자료집**, 93-99.
- 수카르, 티에라. (2007). **Lait, mensonges et propagande**.

- 김성희 옮김 (2009). **우유의 역습**. 서울: 알파.
- 신영희, 김태임, 김현실, 심미경, 이혜정, 홍미령. (2009). **아동간호학**. 서울: 양서원.
- 신정화, 윤희은, 박미애, 안윤경. (2004).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유해성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8(1), 165-171.
- 여성부. (2005). **전국 보육 교육 실태 조사**.
- 아이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로써 저와 같은 심정 이신 이셨던 분 있나요?. (2007, 2. 15). 네이버 지식iN, 자료검색일 2010, 1. 21, 자료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105&docId=30772088&qb=7JWE7J20IOyymOydjOyvcvOuhnCDslrTrprDsnbTsp5Eg67O064K064qUIOyXhOuniOuhnOyNqCDsoIDsmYAg6rCZ7J2AIAnsi6zsoJXsnbTsi6Ag7J207IWo642YIOu2hCDsnOjrgpjsmpQ/&enc=utf8§ion=kin&rank=1&sort=0&spq=0>
- 아이 어린이집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2008, 11. 26). 네이버 지식iN, 자료검색일 2010, 1. 21, 자료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105&docId=33205562&qb=7JWE7J20IOyWtOumsOydtOynkSDrlyzrLjls5Ag7KCV66eQIOqzoOuvvOydtCDrp47sirXri4jri6QuiOuPhOyZgAnso7zshLjsmpQu&enc=utf8§ion=kin&rank=1&sort=0&spq=0>.
- 엘킨드, 데이비드. (1995). *Ties That Stress: The New Family Imbalance*. 이동원, 김모란, 윤옥경 옮김 (1999). **변화 하는 가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오희문. (1990). **쇄미록**. 서울: 해주오씨추탄공과중중.
- 올바른 모유 수유로 건강하고 똑똑하게 아기 키우기 (2009, 2. 26). 데일리안.
-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김현신. (2009). 저 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97-325.
- 유한킴벌리. (2009). **지속가능성보고서, 사람이 희망이다**.
- 이명조. (2005). **영유아발달과 교육**. 서울: 양서원.
- 이문건, 이상주역. (1997). **양아록**. 서울: 대학사.
- 이승미. (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세 청년 기업들 - 아가방 (2004, 7. 7) 매경이코노미.
- 이역만리서 연인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면 (2010, 4. 15). 인터넷과학신문 사이언스타임즈.
- 이영환, 이수재. (2007).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19-25.
- 이호분. (2009). **차라리 자녀를 사랑하지마라**. 서울: 판파스.
- 1회용 제품 가격 올리자, 품질도 올리자 (2008, 08. 28). 오마이뉴스.
- 정병모. (2001). **한국의 풍속화**. 서울: 한길아트.
- 질병관리본부. (2005).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초등학생 정신건강 심각 (2006, 8. 5). 에이블뉴스.
- 최재석. (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 코완, 루스 슈바르츠. (1983). *More Work for Mother*. 김성희 외 4인 공역(1997).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서울: 학지사.
- 테일러, 셸리. (2002). *The Tending Instinct*. 임지원 옮김 (2008). **보살핌**. 서울: 사이언스북.
- 통계청. (2010). <http://www.kostat.go.kr> .
-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2007).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 (2005).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2004).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 (2000).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
- 필먼, 조엘. (2004). *Eat to Live*. 김재일 옮김 (2008). **아이를 변화시키는 두뇌 음식**. 서울: 이아소.
- 한국여성개발원. (199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 홍석표. (2008). **황금열쇠의 비밀**. 서울: 솔로몬북.
- McLuhan, M.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Gilman, C. P. (1972). *The Home: Its Work and Influenc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Harris, J. R. (2009). *The Rur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Freepress.
- Schore, N. A. (2003). *Affect Regulation and the Repair of the Self*.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Strasser, S. M. (1982). *Never Done: A History of American Housework*. New York: Pantheon Books.

접 수 일 : 2010. 07. 05.
수정완료일 : 2010. 09. 24.
게재확정일 : 2010. 10. 25.